

한국근대 디자인의 자료조사 및 연구 1 - 제국미술학교 한국유학생을 통하여

A Study and Collecting Materials for Korean Modern Design 1

- Korean students of Teikoku Art Colleges in Japan from 1929-1945

신희경

성신여자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Shin, heekyoung

Dept. of Industrial Design, Sungsin

Key words: Korean students of Taikoku Art Colleges in Japan, Korea modern design

본 논문은 2002년 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1. 연구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1930-40년대 일본 미술학교 유학생들의 교육 내용과 일본 내 전시 및 활동 상황을 연구하고, 그 졸업생들이 한국으로 돌아와 조직하고 참여한 여러 전시와 미술 교육 활동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일차적인 자료를 발굴함과 동시에 그들이 한국근대 디자인 형성에 끼친 독특한 영향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당시 국내 미술학교가 드물어 대부분의 공예도안을 배우고자 한 이들은 일본으로 유학을 갔으며,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와 전시활동과 교육활동에 종사함으로써 일본에서 배운 그들의 화풍과 교육방식은 한국근대디자인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순차적으로 학교별로 연구할 예정이며, 1차발표는 가장 한국유학생이 많았던 일본 제국미술학교 유학생에 관한 연구이다.

2. 제국미술학교와 한국 유학생

당시 한국에서는 디자인, 도안이라는 새로운 미술을 배울 수 있었던 기관은 물론, 공예교육에 관해서도 전통교육기관이 와해되어, 전문 공예도안학교와 공예도안교육을 담당하는 대학 과정이 없어져버렸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공예도안교육을 받기 위해 유학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였으며, 그 중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일찍 서구미술교육을 수용하여 교육체계가 체계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어 많은 이들이 유학 대상 국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당시 일본은 정책적으로 한국인 유학생들은 받아들이고 있어 일본유학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유학생들이 당시 많이 간 일본 미술학교는 동경미술학교, 제국미술학교, 일본 미술학교, 여자미술학교이다. 그 밖에 여러 성격의 미술연구소가 많았다. 교육대학교(현 츠크바 대학)는 국립사범대학으로서 유학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동경미술학교는 국립학교이기에 유학생이 입학하기에 어려웠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학생들은 국립학교보다 입학하기 쉽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사립학교를 선호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유학생이 많았던 곳이 제국미술학교이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제국미술학교 출신자들이 귀국 후 미술과 디자인 분야의 교육에 종사함으로써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3 제국미술학교의 공예도안학과

제국미술학교는 1929년에 동경미술학교에 필적하는 미술학교 설립을 목표로 일본화과, 서양화과, 공예도안과의 3과가 4년 과정으로 설립되었다. 설립자중 한 명인 나토리(名取)는 [당시 관학은 이미 하나의 고정된 틀을 지녀, 그 틀에 학생을 끼워 맞추려하며, 학생도 또한 그에 적응하는 것이 세상에 인정받는 길이라 믿고있어.., 반면 사립학교는 아직 무조직, 무방침 상태이며, 다만 교실과 석고와 모델을 ...방임해두는 것이 자유주의의 새로운 교육이라 믿어있었다.진실로 인간적인 자유에 달하는 미술교육으로의 염원, 그것이 젊은 우리들의 공통된 염원이었다.]라며 당시의 관학과 사학의 사태를 비판하고, 제국미술학교의 설립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제국미술학교는 1931년에 교육과정을 5년으로 연장하였으며, 1935년에는 공예도안과를 도안공예과로 개칭을 하고, 이어 1939년에는 도안공예과의 3학년의 전문과정을 4부로 나누었다. 즉 제1부가 도자공예, 칠공예, 금속공예, 염직등의 공예부분이며, 제2부는 포스터, 삽화, 그 밖의 일반 인쇄미술, 또는 쇼 윈도우 및 상업 선전 등에 관계하는 미술적인 장식, 처리 등, 종래 상업미술의 이름으로 불리는 분야의 다면적인 실용 미술이다. 제3부는 공예 중 가장 생활적인 분야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건축, 가구, 인테리어 및 그 밖의 건축적인 시설물 등, 생활을 아름답게 하는 조형적 해결의 종합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역이며, 4부는 공업미술이라 불리는 공작물 일반, 즉 공업제품 분야이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의 세분화는 충실한 교육을 지향하고 개혁하려는 교과편성이라 할 수 있다.

4 도안공예과 출신 한국유학생

기존에 밝혀진 제국출신 유학생 명단은 화가들의 증언에 의존하여 서양화과출신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본 조사연구를 통하여 기존에 도안공예과 출신으로 알려진 5명 이외에 7명을 새로 발굴하였다. 즉 도안과의 정식 졸업생으로는 양학제, 김재석, 정순모가 있으며, 그 외에 제명이거나 퇴학자로 곽홍모, 김호준, 김의경, 황문호, 장마서, 문재덕, 임병일, 유해준, 박영희가 있다. 이 밖에 도안공예과 출신은 아니나, 귀국 후 디자인계에서 활약한 이로는 서양화과 연구과 출신의 한홍택이 있다. 1940년도 이후의 입학생에 관해서는 창씨개명으로 인하여 일본명으로 학적부에 기입되어, 아직 한국인으로 파악되지 않은 이들도 많아, 앞으로의 연구진행 결과 더 많은 한국 유학생

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졸업생에 비하여, 제명자의 수가 많은 것은 비단 도안공예과에 한정된 일은 아니고, 당시 학도병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많은 이들이 학교를 그만두거나, 또한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었던 경우가 많았다.

제국출신유학생들은 귀국 후, 주로 교육계에 종사하거나, 전업작가로 남거나, 고향이 이북인 자들은 주로 월북하였다. 교육계에 종사한 이로는 서라벌 예대의 김재석, 홍대, 덕성여대에 재직하였던 한홍택이 있으며, 이들은 자신들이 받은 교육을 전수함으로써 후진양성에 힘썼다. 현재 월북한 제국미술학교의 도안과 출신으로 이북에서 활발한 활동을 한 이로는 곽흥모를 들 수 있다.

4-1. 월북작가 -곽흥모

제국미술학교 출신인 무사시노 미술대학교 시각디자인과 이시가와 명예교수와와의 인터뷰¹⁾를 통하여 새로 발굴된 곽흥모는, 1940년에 도안공예과에 입학하였으나 1944년 초에 학업도중 고향인 사리원으로 돌아가, 해방이전부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6.25전쟁 시기에는 평양미술대학 도안학과 부장으로 재직하여, 제국미술학교에서 배운 디자인 공예교육을 통하여 후진을 양성하였다. 그 후에는 전업 작가로서 여러 전람회에서 입상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이북에서 공예, 도안분야에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였다. 그의 활동범위는 광범위하여, 날염, 도안, 이북에서 선전화라 불리는 포스터, 공예, 그리고 유화, 디자인 저서 활동 등 다양한 분야를 두루 섭렵하였다. 특히 그의 저서로는 교과서<도안의 기본>, 논설<공예와 인민생활>, <우리 나라 민족공예의 보다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천리마시대에 상응하는 민족공예를 창조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자>, <공예장식미술에서 민족적 특성과 현대성>등 주로 도안과 공예에 관한 기초적이며 필수적인 서적이 있다. 또한 그의 대표작으로는 날염<금강산의 아침>, 우표도안<노동법령 실시>, 포스터<조국의 통일독립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모두 다 앞으로!>, <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 나전옷칠공예<풍년송과자함>, 나전옷칠병풍인 <일지매>, 도안<재봉기틀>등이 있다.이 중 몇몇 작품(특히 공예작품들)은 합작으로 창작한 것이지만, 원화 도안에서 시도한 그의 창작적 의도가 충분히 실현되는 작품들이다.

5 조선미술전람회 입선현황

제국미술대학 도안공예과 출신자들의 당시의 작품활동은 관전인 선전활동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朝鮮美術展覽會 (이하 鮮展)는 조선총독부에 의해 1922년에 창설되었으며, 그들이 선전에 수상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武藏野美術大學 시각전달디자인과의 전주임교수인 石川三友 명예교수 인터뷰. 동경, 신주쿠 워싱턴 호텔, 2002.10.9

회수	분야	수상	작가명	작품명
17	공예	입선	문재덕	腦髑額面
18	서양화	입선	김재석	市場所見
18	서양화	입선	한홍택	漁夫
18	공예	입선	김재석	테이블센터
18	공예	입선	문재덕	로케츠額面
18	공예	입선	박영희	蠓鋤隅棚
19	서양화	입선	한홍택	머플러의 少女
19	공예	입선	김재석	掛物
19	공예	입선	문재덕	에듀드
19	공예	입선	박영희	낙랑도양조선환선
20	서양화	입선	한홍택	舞踊女
20	공예	입선	김재석	銀箱角陶板
20	공예	특선	김재석	花入
21	서양화	입선	곽흥모	井戸邊
21	서양화	입선	한홍택	笛
22	서양화	입선	한홍택	몸매의 婦人
22	공예	입선	김재석	鐵砂瓶
23	서양화	입선	한홍택	或ル女像

6. 결론과 앞으로의 과제

이들은 귀국 후 대학의 교수가 되기도 하고, 전시를 통하거나, 기업체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또는 대한민국전람회(국전), 산업미술가 협회와 국가기관 관련 디자인활동에 참여하는 등, 오늘날의 한국디자인이 있게 한 장본인들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들에 대한 연구로서, 아직은 역사적 사실의 자료발굴단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이 연구가 앞으로의 근대 디자인사 연구에 바탕이 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제국 출신자 각 개인의 작품분석을 통하여 일본에서의 교육을 어떻게 수용, 자기화하고 전달하였는지에 관한 연구를 앞으로 이어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주와 참고문헌

- 한국미술연구소 편, 조선미술전람회 기사자료집(미술사논단 제8호 별책부록) 시공사, 1999
- 武藏野美術大學 60年史(1929-1990), 武藏野美術大學, 1991
- 武藏野의 7월 이야기, 월간미술, 2000.7
- 윤범모, 한국근대 미술, 한길 아트, 2000
- 박암중, 한국디자인 백년사, 월간디자인, 1995.8-1996.2연재
- 한홍택 작품집, 1988
- 한국그래픽 디자인계의 산증인 한홍택, 월간디자인, 1988.7
- 정시화, 한국의 현대디자인, 열화당, 1981
- 정시화, 서구모더니즘의 수용과 전개-공예와 디자인(1)
- 김민수, 한국현대디자인과 추상성의 발현 1930-60년대, 한국 현대미술과 추상성-그 현대적 발현과 전개(서울대 조형연구소 1995년 학술 심포지움), 1995
- 최공호, 한국근대미술에 있어서의 공예, 한국 근대 미술의 특성과 변모(한국미술사교육연구회8회 전국학술대회), 1994